ISSN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Vol. No. 28

신규 수출기업의 수출 지속·중단 현황과 시사점

2015년 7월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목차

[요 약]

Ⅰ. 연구배경 및 방법 ····· 1

Ⅱ. 신규 수출업체의 지속·중단 현황 ····· 3

Ⅲ. 수출 지속·중단 영향요인 실증분석 ····· 14

Ⅳ. 수출 지속·중단기업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 17

Ⅴ. 결론 및 시사점 ····· 30

▢ 보고서 내용 문의처

동 보고서는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및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국제무역연구원 미래무역연구실 장상식 연구위원(☎ 02-6000-76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약】

2014년 국내 수출기업수는 9만5천개사로 매년 수출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업체가 2만 8천개사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진입 수출기업의 수출지속률은 2년차에는 절반수준인 54.6%, 4년차에는 1/3 수준인 34.7%로 하락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낮은 수출지속률은 과거에 비해 다소 나아지긴 했으나 국내 수출저변 확대와 좁은 내수시장 탈피를 위해서는 수출 진입 기업수 확대 뿐만 아니라 초보 수출기업의 지속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품목별로는 중고차, 플라스틱, 의류 등에서 신규 진입과 수출중단 업체가 많아 신규 진입과 탈락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품목에서 非제조 무역업체의 일회성 수출이 많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향후 대형화를 통한 전문 수출기업 육성이 요구된다.

국가별로는 최대 수출국인 對중국 수출에서 신규진입과 수출중단이 많았으며 일본, 미국에 비해 수출지속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對中 수출기업의 수출지속이 일본, 미국은 물론, EU, ASEAN에도 뒤지고 있어 對中 수출기업의 중국시장 생존력 강화 노력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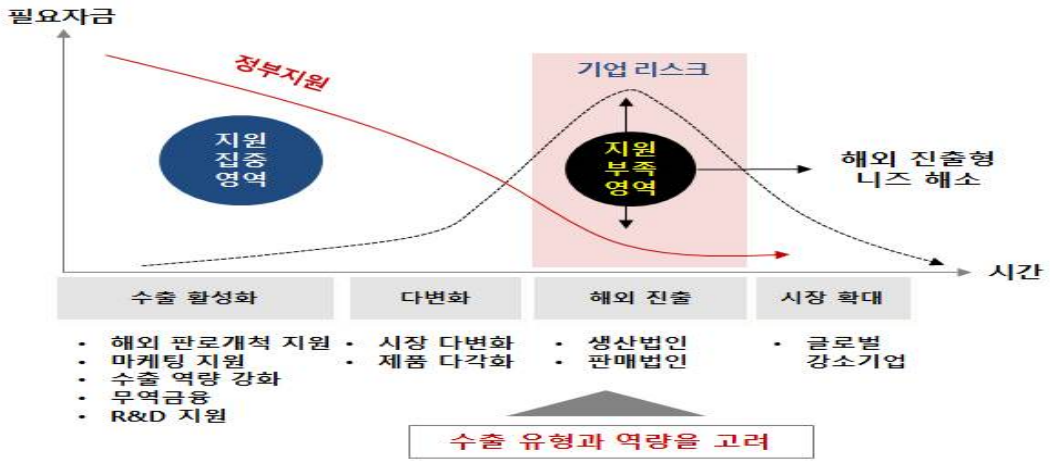
실증분석 결과 수출 국가수 확대가 품목수 확대보다 수출지속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출 지속·중단 기업 설문조사에서도 지속·중단 요인에 대해 모두 '해외판로'를 가장 많이 꼽고 있어 신규 수출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경쟁국은 물론 현지 로컬기업과의 경합이 치열하여 기존의 일회성 지원보다는 거점별 현지유통망 직접연계, 공동 물류망 구축 등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현지 밀착형 지

원이 필요하다.

제조·非제조 수출기업간에 보유역량, 수출애로, 정부지원 성과가 상이하여 정부지원 정책도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非제조 전문 수출기업의 경우 '시장수요 파악' 능력이 뛰어난 반면, 제조기업은 '제품개발·생산' 역량이 높아 제조·전문기업 간 상호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매칭 확대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수출상품화를 위한 R&D 지원시에도 해외수요와 제품니즈 파악 능력을 보유한 전문 수출업체를 참여시켜야 한다.

수출 지속기업과 일부 중단기업의 경우 초기 직접수출에서 해외 투자·생산과 법인설립 등 해외현지화 확대의 성장경로를 밟고 있다. 해외현지화로 수출기업은 해외법인 설립, 시설운영, 현지영업에 따른 리스크는 커지는 반면 국내 수출지원 정책은 직접수출 지원 위주로 구성되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직접수출 지원 방식 이외에 수출기업이 해외진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진출유형별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 개발도 확대해야 한다.

〈 해외 진출 유형에 따른 지원부족 영역 〉



Ⅰ. 연구배경 및 방법

1. 연구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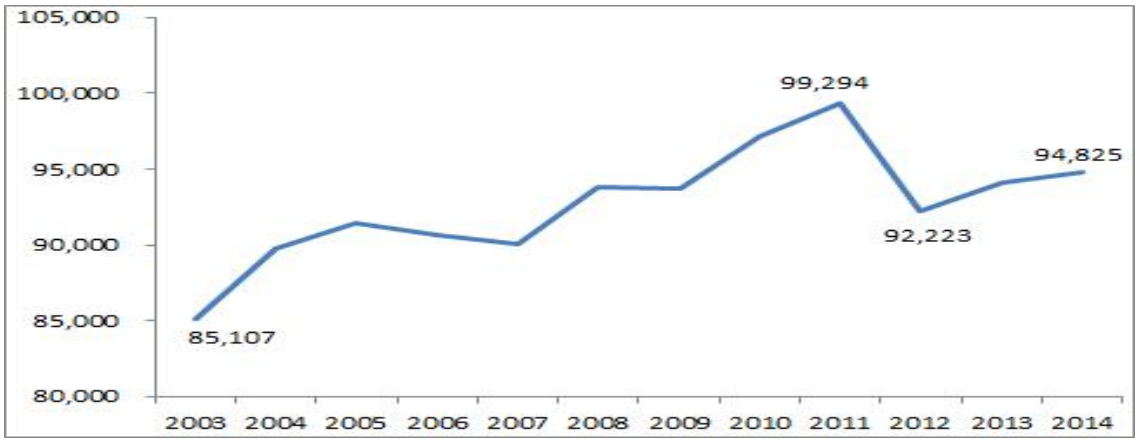
□ 수출실적 기업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10만개사*에 육박

o 무역업 자유화, FTA 확대 및 전자상거래 발달로 수출 진입장벽 완화

- 내수부진 및 정부의 수출지원 강화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관심 증가

* 수출 통관에 집계되는 1달러 이상 수출 모든 사업체 기준

< 총 수출업체 수 추이 >



주 : 사업자번호 화주 기준 (개인사업자 제외)

□ 신규 수출업체가 증가하는 가운데, 무실적 전환 기업도 적지 않음

o 매년 2.8만개사의 업체가 신규로 수출시장에 진입하는 가운데 2.7개사의 수출업체가 무실적 업체로 전환

□ 중기청·중진공 및 무역연구원 공동으로 수출 지속·중단기업에 대한 현황 분석과 설문·인터뷰 조사를 병행하여 수출기업의 지속·중단 요인과 애로, 정책지원 방향 등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2003~2014년 매 연도별로 신규 수출업체를 추출하여 수출지속 및 수출중단 여부를 전수조사

o 무역협회가 보유한 한국무역통계를 이용하여 12년간 모든 신규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활동을 추적

o 신규 수출업체를 2003~2008년 그룹과 2009~2014년 그룹으로 나누어 수출활동 성과를 비교 분석

- 수출지속률, 연차별 수출건수, 수출금액, 수출성장성 지표 분석

- 초보 수출기업의 주력 수출품목 및 수출대상국, 수출 중단기업의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대상국 등을 분석

□ 수출 지속기업과 중단기업에 대해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수출 지속·중단기업의 특징을 추출

o 상기 통계분석을 통해 추출된 수출 지속기업과 중단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

- 설문조사 : 수출지속 521개사, 수출중단 502개사 총 1,023개사
- 심층인터뷰 : 수출지속 30개사, 수출중단 20개사 총 50개사

o 제조·非제조, 직접·간접 수출 등 수출 유형별 특징 및 애로를 조사

o 수출기업의 유형별 성장경로별 애로사항 및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제시

Ⅱ. 신규 수출업체의 지속·중단 현황

(1) 분석대상 신규 수출업체

□ 국내 수출업체(사업자번호 기준)[1]는 2014년 기준 94,825개사로 매년 약 900개사가 순증

o 매년 평균 2.8만개사가 수출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고 있으며, 2.7만개사가 전년대비 수출 무실적 업체로 전환

※ 수출업체수는 통관실적에 포함되는 1달러 이상, 모든 수출유형의 수출업체를 포괄하고 있음 (개인사업자 제외)

〈 신규 및 무실적 전환 수출기업수 현황 〉

(개사)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수출업체	89,719	91,421	90,614	90,075	93,820	93,713	97,165	99,294	92,223	94,108	94,825
순 증가(a)	4,612	1,702	-807	-539	3,745	-107	3,452	2,129	-7,071	1,885	717
신규업체(b)	34,379	34,167	32,046	30,430	31,828	30,382	29,395	27,618	21,654	20,451	19,078
무실적전환(b-a)	29,767	32,465	32,853	30,969	28,083	30,489	25,943	25,489	28,725	18,566	18,361

주 : 1) 화주 사업자번호 기준 (개인사업자 제외)
2) 무실적전환(중단업체)업체수는 신규수출업체에서 순증가업체수를 차감하여 계산

□ 외화획득을 위한 일반 상거래 신규 수출업체를 추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

o 일회성 샘플수출·물품이전 등의 소액수출과 기존기업의 분사, 외투기업, 신설 대기업 계열사 등 초기 높은 수출실적 업체를 제외

① 금액기준 : - 1년차 1,000 달러미만, 200만달러 초과 업체 제외
- 2년차 2,000만달러 초과 수출업체 제외

o 수출유형에서도 영리목적 이외의 원조, 상환, 반품, 승인면제 등을 제외

1) 수출업체분류는 화주(사업자번호) 및 수출자(통관고유번호)로 분류할 수 있으며, 법인기준 분석을 위해서는 통관고유번호가 유용하나 통관고유번호 시행이 2008년부터 시행되어 부득이 화주기준 사업자번호로 분석

〈 수출유형 및 신규 수출업체 분석 대상 〉

수 출 형 태	분석포함여부
일반형태 수출	○
전자상거래 수출	○
국내 외국인업체의 외국수탁가공 수출	×
일반업체가 수탁받아 가공후 수출	○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	○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	○
연계무역 (구상무역포함)	○
임대방식 수출(소유권이전조건)	○
대외원조(정부원조)	×
대외원조(민간원조)	×
현물차관수출	×
현물상환수출	×
해외투자수출	○
산업설비 수출	○
주한미군 불하물품 수출	×
외국물품을 수입통관후 원상태로 수출	×
계약조건상이, 하자이행에 의한 대체품 수출	○
해외이주자 반출물품	×
무상반출 견본품 및 창고용품	×
수입후 계약내용 상이로 반출물품	×
기타 수출승인 면제물품	○
A/S를 위한 수출물품	○
기타 수출승인 면제물품	×

□ 최종 분석대상 업체는 2003~2008년 87,446개사, 2009~2014년 86,659개사

연도	신규업체수	비 고
2003년	15,506	• 1년차 1,000달러이상~2,000만달러 미만업체 • 2년차 2,000만달러 미만업체 • 일반 상업적 수출거래만 포함 • 수출 화주 (사업자번호) 기준 • 2009~2014년 수출업체와의 비교를 위해 추출
2004년	15,072	
2005년	15,037	
2006년	13,807	
2007년	13,626	
2008년	14,398	
소계	87,446	
2009년	14,823	• 1년차 1,000달러이상~2,000만달러 미만업체 • 2년차 2,000만달러 미만업체 • 일반 상업적 수출거래만 포함 • 수출 화주 (사업자번호) 기준
2010년	14,013	
2011년	13,844	
2012년	15,254	
2013년	14,892	
2014년	13,833	
소계	86,659	

(2) 수출 지속률

□ 2009~2014년 신규 수출업체의 수출지속률이 2003~2008년 신규 수출업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03~'08년 신규 수출업체의 경우 지속률이 1년후 54%로 하락한 후 5년후에는 25.1%, 10년후에는 16.0%만이 수출에 참여

- '03~'08년 신규 수출업체 지속률(%) : 53.8(t+1) → 39.8(t+2)→ 32.8(t+3)→28.4(t+4)

< 2003~2008년 신규 수출업체의 연차별 수출 추이 >

(개사)

	t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t+11
'03년 신규	15,506	8,696	6,373	5,098	4,270	3,831	3,427	3,157	2,933	2,711	2,506	2,311
'04년 신규	15,072	8,115	5,788	4,797	4,145	3,615	3,286	3,033	2,775	2,569	2,401	0
'05년 신규	15,037	8,013	5,944	4,917	4,172	3,734	3,429	3,100	2,826	2,639	0	0
'06년 신규	13,807	7,312	5,612	4,564	4,057	3,635	3,303	2,975	2,696	0	0	0
'07년 신규	13,626	7,358	5,368	4,509	4,008	3,535	3,192	2,904	0	0	0	0
'08년 신규	14,398	7,582	5,721	4,840	4,177	3,638	3,219	0	0	0	0	0
소 계 (a)	87,446	47,076	34,806	28,725	24,829	21,988	19,856	15,169	11,230	7,919	4,907	2,311
모 수 (b)	87,446	87,446	87,446	87,446	87,446	87,446	87,446	73,048	59,422	45,615	30,578	15,506
지속률(a/b)	**100.0**	**53.8**	**39.8**	**32.8**	**28.4**	**25.1**	**22.7**	**20.8**	**18.9**	**17.4**	**16.0**	**14.9**

주 : t년은 각 수출 시작년도를 의미하며 최종 수출실적 연도는 2014년임

o '09~'14년 신규 수출업체의 경우 1년후 54.6% 5년후에는 25.6%로 '03~'08년 대비 지속률이 각각 0.8%p, 0.5%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09~'14년 신규 수출업체 지속률(%) : 54.6(t+1) → 41.5(t+2)→ 34.7(t+3)→29.8(t+4)

<2009~2014년 신규업체의 연차별 수출 추이>

	t	t+1	t+2	t+3	t+4	t+5
'09년 신규	14,823	8,009	6,121	5,106	4,405	3,791
'10년 신규	14,013	7,689	5,909	4,906	4,188	0
'11년 신규	13,844	7,479	5,663	4,792	0	0
'12년 신규	15,254	8,425	6,350	0	0	0
'13년 신규	14,892	8,147	0	0	0	0
'14년 신규	13,833	0	0	0	0	0
소계(a)	86,659	39,749	24,043	14,804	8,593	3,791
모수(b)	86,659	72,826	57,934	42,680	28,836	14,823
지속률(a/b)	**100.0**	**54.6**	**41.5**	**34.7**	**29.8**	**25.6**

< 수출지속률 비교 >

주 : t년은 각 수출 시작년도를 의미하며 최종 수출실적 연도는 2014년임

(3) 수출 품목·국가수 및 수출금액 (2009~2014년 신규업체 기준)

□ **수출 품목수는 첫해 2.6개에서 5년후에는 4.7개로 증가하였으며, 수출 국가수도 첫해 1.6개국에서 5년후에는 3.3개국으로 증가**

o '03~'08년 신규업체에 비해 수출국가수 추이는 비슷하나, 품목수는 HS10단위 세분화 등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소폭 확대

□ **연간 수출건수 및 건당 수출액은 첫해 10건, 1.3만달러에서 5년후에는 수출 51건, 1.8만달러로 확대**

o '03~'08년 신규업체에 비해 수출건수는 더 많은 반면 건당 수출액은 적은 편임

o 이는 과거에 비해 다품종 소량 수출이 확대되고 온라인 해외직판으로 소량 수출이 증가한데 기인

< 수출업체의 연차별 수출 다양성 및 수출액 추이 >

(개, 달러, %)

	2003~2008년 신규 수출업체					2009~2014년 신규 수출업체				
	품목	국가	건수	건당 수출	연간 수출	품목	국가	건수	건당 수출	연간 수출
t	2.4	1.5	8.1	14,714	119,265	2.6	1.6	10.0	12,598	126,153
t+1	3.7	2.2	23.8	15,320	363,979	3.9	2.4	28.9	13,750	397,145
t+2	3.9	2.6	29.7	16,926	502,924	4.1	2.7	36.0	15,084	542,415
t+3	4.1	2.8	35.2	18,420	648,302	4.3	2.9	39.2	16,488	645,610
t+4	4.2	3.0	40.4	19,879	803,673	4.4	3.0	42.7	17,187	733,841
t+5	4.4	3.1	45.7	20,690	945,349	4.7	3.3	50.7	18,484	937,274
t+6	4.6	3.3	50.9	21,648	1,101,274					
t+7	4.7	3.5	54.2	22,854	1,239,337					
t+8	4.9	3.6	59.0	24,067	1,418,756					
t+9	4.9	3.8	64.1	25,081	1,607,677					
t+10	5.0	4.0	71.4	26,428	1,886,514					
t+11	5.0	4.2	74.7	28,519	2,130,407					
연평균 증감률	13.2	15.8	41.3	7.1	51.3	12.9	16.1	38.3	8.0	49.3

주 : 품목은 HS10단위 기준, 연평균증감률은 t+1 ~ t+5년 기간중 수치임

(3) 결제방식별 추이 (2009~2014년 신규업체)

□ **수출 초기에는 송금방식이 대부분이나 수출연차가 증가할수록 신용장 비중이 상승**

o 수출 첫해 신용장 수출비중은 7.5%에 불과했으나 5년후에는 9.1%로 상승하였으며 송금방식 비중은 86.9%에서 83.3%로 하락

- 수출 초기에는 소액 및 협상력 열위로 송금방식 비중이 높으나 연차가 증가할수록 일정금액 이상 거래시에는 신용장 방식을 적용하는데 따른 것으로 판단

※ '09~'14년 전체 결제별 수출비중(%) : 63.0(송금), 14.0(L/C), 8.5(추심), 기타(14.4)

o 반면 '03~'08년 신규 수출업체에 경우 신용장에서 송금방식으로의 전반적인 결제방식 변화 추세에 따라 신용장 방식이 점차 하락

< 신규 수출업체의 연차별 결제방식 비중 추이 >

(%)

	2003~2008년 신규 수출업체				2009~2014년 신규 수출업체			
	LC	송금	추심	기타	LC	송금	추심	기타
t	17.3	72.8	2.5	7.4	7.5	86.9	1.2	4.4
t+1	17.3	72.6	2.8	7.3	8.5	85.6	1.2	4.6
t+2	16.3	74.1	2.8	6.8	10.1	83.4	1.4	5.1
t+3	16.3	74.7	2.7	6.2	9.5	83.5	1.6	5.4
t+4	15.8	74.9	3.2	6.1	8.8	83.0	1.9	6.2
t+5	14.7	75.6	2.7	6.9	9.1	83.3	2.2	5.3
t+6	12.9	77.0	2.8	7.4				
t+7	11.9	77.7	2.5	7.9				
t+8	12.3	77.5	2.8	7.5				
t+9	10.1	78.3	2.6	9.0				
t+10	9.0	77.4	3.1	10.6				
t+11	10.8	74.8	2.5	11.9				

(4) 수출 성장성 (2009~2014년 신규업체)

□ **수출시작 5년 후에 100만달러 초과업체 비중은 4.5%, 500만달러 초과업체 비중은 0.8% 수준**

o 신규 수출업체 1,000개사중 수출 6년차에 100만달러 이상 수출업체는 45개사, 500만달러 이상 수출업체는 8개사에 불과한 것임

〈신규 수출업체의 일정 수출금액 달성업체 비중〉

(%)

	'03~'08년 신규 수출업체		'09 ~'14년 신규 수출업체	
	100만달러	500만달러	100만달러	500만달러
t+1	4.9	0.4	5.6	0.5
t+2	4.7	0.6	5.5	0.6
t+3	4.6	0.7	5.1	0.7
t+4	4.6	0.8	4.8	0.8
t+5	4.4	0.9	4.5	0.8
t+6	4.2	0.9		
t+7	4.2	1.0		
t+8	4.2	1.1		
t+9	3.9	1.0		
t+10	3.8	1.1		
t+11	3.8	1.1		

주 : 전체 신규 수출업체 기준

□ **수출 5년후까지 매년 실적보유 업체 비중은 18.1%, 연평균 5%이상 수출증가 업체는 12.5%, 10%이상 수출증가 업체는 11.7% 수준**

o 신규 수출 100개사중 매년 수출실적을 유지하는 업체는 18개사에 불과

〈신규 수출업체중 매년 실적업체 및 고성장 업체 비중〉

(%)

	'03~'08년 신규 수출업체			'09~'14년 신규 수출업체		
	매년보유	연 5% 이상	연 10% 이상	매년실적	연 5% 이상	연 10% 이상
t+1	53.8	32.8	32.0	54.6	33.8	33.1
t+2	35.3	22.3	21.5	36.7	23.8	22.9
t+3	26.5	17.3	16.4	27.9	18.4	17.5
t+4	21.2	14.2	13.3	22.3	14.8	13.8
t+5	17.6	11.9	11.1	18.1	12.5	11.7
t+6	15.1	10.2	9.4			
t+7	13.1	9.0	8.1			
t+8	11.6	8.0	7.2			
t+9	10.3	7.1	6.3			
t+10	9.3	6.2	5.4			
t+11	8.6	5.8	5.1			

주 : 전체 신규 수출업체 기준

(5) 수출시작 품목·국가 (2009~2014년 신규업체)

□ **초보 수출업체는 중고차, 플라스틱, 의류, 자동차부품, 기타기계류 등의 수출 비중이 높은 편**

o 과거에 비해 섬유류 비중은 하락한 반면 부품·소재 비중이 상승했으며, 화장품, 정전기기, 고무제품 등 수출시작 품목이 점차 광범위해짐

〈1년차 수출업체의 수출품목 비중〉

(%)

순위	2003~2008년 수출시작				2009~2014년 수출시작			
	품목명	금액	품목명	업체수	품목명	금액	품목명	업체수
1	기타잡제품	11.6	기타잡제품	8.3	중고차	9.7	플라스틱	6.0
2	의류	5.3	플라스틱	5.8	플라스틱	4.7	중고차	3.5
3	플라스틱	4.0	의류	4.6	의류	3.8	의류	3.9
4	기타기계류	3.7	기타섬유제품	3.3	자동차부품	3.3	기타섬유제품	2.9
5	편직물	3.6	기타기계류	2.8	기타기계류	3.1	자동차부품	2.4
6	섬유·화학기계	2.8	자동차부품	2.3	편직물	2.6	기타기계류	2.5
7	중고차	2.6	기타직물	2.3	비누,치약,화장품	2.5	기계요소	2.0
8	자동차부품	2.6	편직물	2.1	무선통신기기	2.3	원동가·펌프	1.9
9	인조장섬유직물	2.6	인조장섬유직물	2.1	합성수지	2.0	종이제품	2.0
10	기타섬유제품	2.1	섬유·화학기계	2.0	인조장섬유직물	2.0	비누,치약,화장품	2.2
11	기타직물	2.0	컴퓨터	1.8	섬유·화학기계	2.0	인조장섬유직물	1.7
12	합성수지	1.8	인조단섬유직물	1.7	건설광산기계	2.0	계측제어분석기	1.7
13	건설광산기계	1.6	종이제품	1.7	컴퓨터	1.8	주단조품	1.6
14	컴퓨터	1.6	원동기·펌프	1.5	금속공작기계	1.6	컴퓨터	1.8
15	금속공작기계	1.5	기계요소	1.5	기타섬유제품	1.6	무선통신기기	1.6
16	동제품	1.3	계측제어기	1.4	반도체	1.5	편직물	1.4
17	무선통신기기	1.2	휴대용품	1.4	금형	1.5	섬유·화학기계	1.6
18	원동가·펌프	1.2	중고차	1.3	농산가공품	1.4	정전기기	1.4
19	기계요소	1.1	면직물	1.3	기계요소	1.4	기타직물	1.1
20	반도체	1.1	합성수지	1.2	주단조품	1.3	고무제품	1.2

주 : MTI 3단위 기준

□ **수출 초보업체의 수출대상국은 중국, 일본, 미국 순이나 상위 수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점차 하락**

o 첫 수출 대상국으로서 중국, 일본, 미국 등 주력 수출국 비중이 높으나 2003~2008년 업체와 비교할 경우 3개국 비중은 하락세를 보임

- 비중하락 국가 (업체수기준, %) : 중국(-2.9%p), 미국(-2.5%p), 일본(-0.8%p)

o 반면 ASEAN 국가와 러시아, 몽골에 대한 첫수출비중은 상승세 시현

- 비중상승 국가 (업체수기준, %) : 베트남(2.1%p), 몽골(0.5%p), 태국(0.5%p), 러시아(0.4%p), 필리핀 (0.4%p)

〈1년차 수출업체의 수출대상국 비중〉

(%)

순위	2003~2008년 수출시작				2009~2014년 수출시작			
	국가명	금액	국가명	업체수	국가명	금액	국가명	업체수
1	중국	25.6	중국	19.9	중국	22.7	중국	17.0
2	일본	13.1	일본	10.4	일본	11.8	일본	9.6
3	미국	9.7	미국	9.8	베트남	7.3	미국	7.3
4	홍콩	6.2	홍콩	5.4	미국	6.6	베트남	5.7
5	베트남	4.7	베트남	3.6	홍콩	6.0	홍콩	5.1
6	대만	2.6	대만	2.9	러시아	3.8	태국	2.6
7	러시아	2.5	싱가포르	2.4	요르단	2.6	대만	2.6
8	인도네시아	2.2	인도네시아	2.2	인도네시아	2.4	싱가포르	2.6
9	UAE	1.8	태국	2.1	대만	2.4	필리핀	2.4
10	필리핀	1.7	필리핀	2.0	필리핀	2.3	인도네시아	2.2
11	요르단	1.7	호주	1.9	태국	2.1	러시아	2.1
12	태국	1.7	UAE	1.9	리비아	2.1	말레이시아	1.9
13	인도인디아	1.5	말레이시아	1.7	인도	1.6	호주	1.9
14	말레이시아	1.5	인도인디아	1.7	싱가포르	1.6	몽골	1.9
15	싱가포르	1.4	러시아	1.7	UAE	1.5	인도	1.7
16	독일	1.2	캐나다	1.6	말레이시아	1.5	요르단	1.6
17	호주	0.9	독일	1.6	이란	1.2	UAE	1.5
18	캐나다	0.9	몽골	1.4	몽골	1.1	독일	1.4
19	이란	0.8	영국	1.3	호주	1.0	리비아	1.2
20	영국	0.8	파키스탄	0.9	독일	0.9	캐나다	1.2

(6) 수출 중단 품목·국가 (2009~2014년 신규업체)

□ **주요 신규 수출품목인 중고차, 의류, 플라스틱 등에서 수출중단 업체도 많아 해당품목의 수출업체 변동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o 이는 중고차, 의류, 플라스틱 등에서 非제조 무역업체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기인

- 전체 수출중단 업체중 최근 호조품목인 화장품 수출 중단 비중도 2.5%에 달해 非제조 무역업체의 수출이 많은 것으로 판단

o 반면 원동기·펌프, 합성수지, 기계요소, 금형 등 제조업체 중심의 수출품목은 여타 품목에 비해 수출중단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o 현재까지는 非제조 무역업체에서 수출중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제조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

〈 수출 중단업체의 수출품목 현황 〉

(%)

순위	금액 기준				업체수 비중			
	3년차 탈락	비중	4년차 탈락	비중	3년차 탈락	비중	4년차 탈락	비중
1	중고차	9.5	중고차	11.5	중고차	6.9	중고차	8.4
2	의류	4.3	플라스틱제품	4.8	플라스틱제품	6.1	플라스틱제품	6.5
3	플라스틱제품	4.1	편직물	3.8	의류	5.4	의류	5.6
4	무선통신기기	3.9	의류	3.8	자동차부품	3.1	자동차부품	4.0
5	자동차부품	3.1	자동차부품	3.3	기타섬유제품	2.6	비누치약화장품	2.5
6	컴퓨터	2.8	금·은·백금	3.2	비누치약화장품	2.5	편직물	2.4
7	기타석유화학	2.4	반도체	2.7	컴퓨터	2.3	기타섬유제품	2.4
8	편직물	2.1	운반하역기계	2.5	무선통신기기	2.1	인조장섬유직물	2.3
9	금·은·백금	2.0	기타기계류	2.4	인조장섬유직물	2.1	반도체	2.1
10	합성수지	2.0	정밀화학원료	2.3	기타기계류	2.0	컴퓨터	2.0
11	반도체장비	1.9	컴퓨터	2.3	반도체	1.8	기계요소	1.9
12	기호식품	1.8	건설광산기계	2.0	편직물	1.8	종이제품	1.7
13	기타기계류	1.7	합금철·고철	1.8	종이제품	1.7	원동기·펌프	1.7
14	농산가공품	1.6	합성수지	1.7	합성수지	1.6	기타기계류	1.6
15	기계요소	1.6	무선통신기기	1.6	기계요소	1.5	농산가공품	1.5
16	반도체	1.6	반도체장비	1.5	휴대용품	1.5	무선통신기기	1.5
17	섬유·화학기계	1.5	기타섬유제품	1.4	농산가공품	1.5	기호식품	1.4
18	동제품	1.5	금형	1.4	기호식품	1.4	합성수지	1.4
19	건설광산기계	1.4	주단조품	1.4	원동기·펌프	1.4	휴대용품	1.3
20	전자응용기기	1.4	농산가공품	1.4	건설광산기계	1.4	섬유·화학기계	1.3

□ 한편 수출중단 업체의 수출대상국은 중국이 가장 많은 가운데 연차가 증가할수록 對중국 중단업체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o 중국수출은 신규 진입뿐만 아니라 탈락업체가 가장 많은 가운데 신규 진입업체 비중은 하락한 반면 탈락업체 비중은 상승

- 수출중단 기업중 對中 수출중단 업체 비중은 3~6년차 중단 기준으로 2003~2008년 신규 수출업체는 20.0%이나 2009~2014년 신규 업체는 23.4%로 3.4%p 상승

- 일본은 11.7%에서 13.7%로 2.0%p 증가에 그쳤으며, 미국은 8.7%로 비슷한 추이를 유지

〈 수출 중단업체의 수출대상국 비중 현황 〉

(%)

순위	금액기준						업체수 기준					
	3년차 중단		4년차 중단		5년차 중단		3년차 중단		4년차 중단		5년차 중단	
1	중국	25.2	중국	26.2	중국	28.6	중국	20.4	중국	22.8	중국	25.4
2	일본	11.9	일본	13.5	일본	12.9	일본	12.8	일본	13.1	일본	14.5
3	홍콩	9.3	러시아	5.4	미국	7.3	미국	7.8	미국	7.9	미국	9.3
4	베트남	6.0	미국	4.6	독일	6.9	베트남	6.6	베트남	5.7	베트남	5.3
5	미국	5.9	대만	4.4	홍콩	4.8	홍콩	5.6	홍콩	3.8	홍콩	4.6
6	러시아	4.5	요르단	4.3	베트남	4.5	필리핀	2.9	요르단	3.4	요르단	3.3
7	인도네시아	2.7	홍콩	4.1	이란	3.5	러시아	2.5	러시아	2.7	싱가포르	2.3
8	대만	2.5	베트남	4.0	러시아	2.7	요르단	2.4	태국	2.4	인도네시아	2.2
9	요르단	2.3	이란	2.0	요르단	2.4	태국	2.4	필리핀	2.3	태국	2.1
10	필리핀	1.9	태국	1.7	인도네시아	2.2	싱가포르	2.3	대만	2.2	필리핀	1.8
11	이란	1.8	인도네시아	1.7	리비아	1.9	대만	2.3	몽골	1.9	몽골	1.7
12	리비아	1.6	필리핀	1.6	인도	1.7	몽골	2.1	싱가포르	1.8	러시아	1.6
13	태국	1.5	독일	1.4	필리핀	1.4	인도네시아	1.8	인도네시아	1.8	인도	1.6
14	싱가포르	1.5	말레이시아	1.4	태국	1.4	호주	1.8	말레이시아	1.6	대만	1.5
15	몽골	1.3	멕시코	1.3	말레이시아	1.3	리비아	1.5	호주	1.6	리비아	1.5
16	인도	1.2	터키	1.3	몽골	1.1	말레이시아	1.3	인도	1.4	호주	1.3
17	호주	1.2	우즈베키스탄	1.2	UAE	1.0	UAE	1.3	UAE	1.2	독일	1.2
18	말레이시아	1.2	호주	1.1	싱가포르	1.0	인도	1.3	독일	1.1	파키스탄	1.0
19	독일	0.9	UAE	1.1	브라질	1.0	독일	1.0	영국	1.1	말레이시아	0.9
20	UAE	0.9	인도	1.0	캄보디아	0.9	캄보디아	0.9	키르키스탄	1.0	UAE	0.9

〈 수출 중단업체의 수출 대상국별 비중 비교 〉

(%)

	2003~2008 신규 수출업체					2009~2014 신규 수출업체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평균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평균
중국	20.9	19.1	19.5	20.4	20.0	20.4	22.8	25.4	24.8	23.4
일본	11.1	10.6	12.3	12.9	11.7	12.8	13.1	14.5	14.2	13.7
미국	8.9	8.3	8.8	8.7	8.7	7.8	7.9	9.3	9.8	8.7

주 : 업체수 기준

(7) 국가별 수출지속률 (2009~2014년 신규업체)

□ 국가별 수출지속률은 對日수출업체가 가장 높은 가운데, 對中 수출업체의 수출지속률은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o 對日수출기업중 5년후(6년차) 對日수출 지속비율은 24.5%로 중국(19.9%), 미국(22.2%)에 비해 높았음

- 이는 對日수출의 경우 수출시작은 쉽지 않으나 수출이 시작되면 상호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수출지속 가능성이 높은데 기인

o 반면 對中 수출기업의 수출지속률은 2003~2008년에는 미국보다 높았으나, 2009~2014년에는 미국을 하회하여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

o 중국의 경우 로컬기업과의 경합 확대로 신규기업의 중국진출 둔화 및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중단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수출중단도 없지 않으나 대부분의 초보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對中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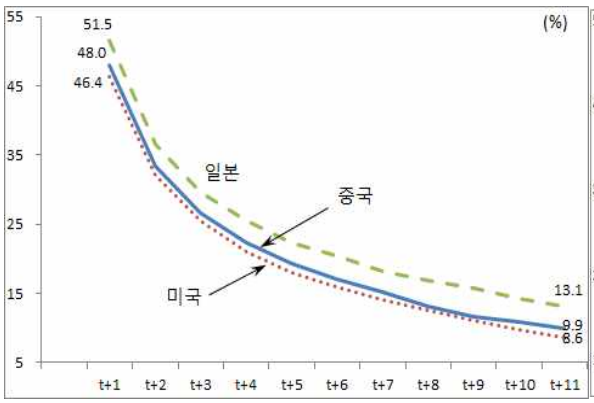
- 對中 수출지속률(%) : 48.5(%) → 35.8(%) → 29.3(%) → 24.7(%) → 19.9(%)
- 對美 수출지속률(%) : 48.7(%) → 35.9(%) → 30.0(%) → 24.1(%) → 22.2(%)

〈 수출기업의 국가별 수출지속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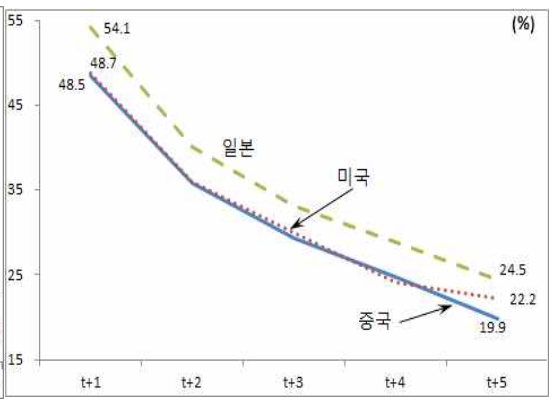
(%)

	'03~'08년 신규 수출업체					'09 ~'14년 신규 수출업체				
	중국	미국	일본	EU	ASEAN	중국	미국	일본	EU	ASEAN
t+1	48.0	46.4	51.5	55.2	48.9	48.5	48.7	54.1	54.4	49.7
t+2	33.3	32.1	36.6	39.6	35.0	35.8	35.9	40.1	41.5	36.0
t+3	26.7	25.4	29.5	32.2	28.7	29.3	30.0	33.1	33.7	29.2
t+4	22.3	21.1	25.5	27.3	25.0	24.7	24.1	28.9	28.6	24.9
t+5	19.3	17.9	22.4	24.2	22.0	19.9	22.2	24.5	26.6	21.5
t+6	17.0	15.9	20.4	21.6	20.3					
t+7	15.1	14.0	18.2	19.7	18.7					
t+8	13.2	12.5	16.9	17.6	17.2					
t+9	11.7	11.1	15.8	16.1	16.4					
t+10	10.8	9.8	14.3	14.9	15.1					
t+11	9.9	8.6	13.1	12.7	13.9					

<'03~'08년 신규수출업체 국별 지속률>



<'09~'14년 신규수출업체 국별 지속률>



Ⅲ. 수출 지속·중단 영향요인 실증분석

(1) 분석모형 및 자료

□ 수출 지속·중단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프로빗 모형을 이용

o 종속변수가 수출 지속·중단의 이항변수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항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중 프로빗(Probit) 모형으로 분석

o 프로빗 모형은 다음과 같은 (1), (2)식으로 정의되며 이를 기초로 종속변수가 발생될 프로빗 모형 확률은 (3)식과 같은 [0, 1]의 누적 정규분포함수로 유도될 수 있음

$$y_{i^*} = \sum_{k=1}^{K} \beta_k x_{ik} + \epsilon_i \sim N(0, \sigma^2) \text{----- (1)} \qquad y_i = \begin{cases} 1 \text{ if } y_i^* > 0 \\ 0 \text{ if } y_i^* \leq 0 \end{cases} \text{ ----- (2)}$$

$$\Phi(x) = (2\pi)^{-\frac{1}{2}} \int_{-\infty}^{x} \exp(-\frac{z^2}{2}) dz \text{ ----- (3)}$$

o 본 연구에서는 수출품목수, 수출국가수, 수출금액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였으며, 품목별, 국가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추가

< 회귀분석 변수정의 및 측정항목 >

변 수		변 수 정 의
종속변수	지속·중단	• 중단기업(0) : 1~3년차 매년수출, 4~6년차 수출중단
		• 지속기업(1) : 1~6년차 매년 수출
독립변수	수출품목수	• HS10단위 기준으로 집계
	수출국가수	• 수출대상국별로 집계
	수출 금액	• 연간 수출액으로 자연로그를 취합
	품목더미	• MTI 1단위 기준 10개 품목으로 화공품 기준으로 분석
	국가더미	• 미국, 일본, 중국, EU, 아세안, 기타로 분류하고 중국 기준으로 분석
분석 데이터		• '03~'08년중 수출시작기업과 '09~'14년중 수출시작기업으로 분류

(2) 분석결과

□ 수출국가수 확대가 품목수 확대보다 수출지속에 더 큰 영향을 미침

o 수출국가수가 1개 증가할 경우 수출지속 가능성이 1.7% 증가하는 반면 품목수가 1개 증가할 경우에는 지속가능성이 0.7% 증가

- 이는 초기 수출기업의 수출지속을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 등 품목수 확대 지원보다는 해외시장 개척 등의 국가 수 확대 지원이 더 효과적임을 의미

o 수출액이 여타기업에 비해 1% 높을 경우 수출지속 가능성이 6.6%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출액 확대가 수출지속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

□ 국가별로는 對日 수출기업의 수출지속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운데 對中 수출업체의 수출지속 가능성은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o 對日 수출기업의 경우 높은 수출지속률 등으로 인해 수출지속 가능성이 여타국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對 EU 수출기업의 경우 2003~2008년에는 對中 수출업체에 비해 수출지속 가능성이 낮았으나 2009~2014년중에는 더 높아짐

o 미국, ASEAN에 비해서도 對中 수출기업의 수출지속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과거에 비해 수출지속 격차가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2003~2008년 수출기업 : 일본 > 미국 > ASEAN > 중국 > EU 순으로 수출지속 가능성이 높았음

- 2009~2014년 수출기업 : 일본 > EU > 미국 > ASEAN > 중국 순으로 국가별 수출지속 가능성 순위가 변동

□ 품목별로는 광산품, 화공품의 수출지속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자동차(중고차)의 수출지속 가능성이 가장 낮았음

o 화공품, 기계류 등 제조업체 중심의 수출품목에서 수출지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

- 2009~2014년 수출기업 : 광산물 > 화공품 > 기계류 > 플라스틱고무가죽 > 생활용품 > 전기전자 > 철강금속 > 섬유류 > 농림수산품 > 중고차 순

〈 수출지속 중단 프로빗 모형 실증분석 결과 〉

설명변수		한계효과		비고
		'03~'08년 신규수출	'09~'14년 신규수출	
기본 변수	국가수	0.0189***	0.0172***	• 국가·품목수가 1개 증가할 경우 수출지속 가능성이 각각 1.7%, 0.7% 상승
	품목수	0.0098***	0.0067***	
	수출액(로그)	0.0579***	0.0662***	• 수출액이 1% 증가시 수출지속 가능성이 6.6% 상승

주 : 프로빗모형 계수값을 기초로 평균 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를 계산

설명변수		계수값		
		'03~'08년 신규수출	'09~'14년 신규수출	
국가 더미 (중국 대비)	미국	0.085***	0.106***	•'03~'08 : 일본 > 미국 > ASEAN > 중국 > EU •'09~'14 : 일본 > 미국 > EU > ASEAN > 중국
	일본	0.257***	0.206***	
	EU	-0.028	0.161***	
	ASEAN	0.052*	0.072**	
	기타	-0.056**	-0.112***	
품목 더미 (화공품 대비)	농림수산품	-0.269***	-0.336***	• '03~'08 : 광산물 > 화공품 > 기계류 > 플라스틱고무가죽 > 생활용품 > 전기전자 > 철강금속 > 농림수산품 > 섬유류 > 중고차 • '09~'14 : 광산물 > 화공품 > 플라스틱고무가죽 > 기계류 > 생활용품 > 전기전자 > 철강금속 >섬유류 > 농림수산품 > 중고차
	광산물	0.274**	0.041	
	플라스틱고무가죽	-0.047	-0.090*	
	섬유류	-0.471***	-0.267***	
	생활용품	-0.035	-0.107**	
	철강금속	-0.205***	-0.204***	
	기계류	-0.024	-0.093**	
	전기전자	-0.172***	-0.140***	
	중고차	-0.798***	-0.797***	
	잡제품	-0.452***	-0.024	

주 : 1. 프로빗모형 계수값으로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하며,
2. 품목분류는 MTI1단위, EU는 28개국 기준

Ⅳ. 수출 지속·중단기업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1) 조사개요

조사개요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국제무역연구원이 공동으로 수출 지속·중단기업 표본을 추출하여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 조사 방법 : 전화·팩스·전자메일·방문 등 Multi-way Survey로 진행
- 조사 일정 : 2014년 12월 2일 ~ 2015년 2월 23일
- 설문 대상 : 지속기업 521개, 중단기업 502개 (전체 1,023개 기업)
- 심층인터뷰 : 지속기업 30개, 중단기업 20개 (전체 50개 기업)

〈 설문조사 응답현황 〉

(개사)

지역	지속	중단	소계
서 울	140	143	283
부 산	36	40	76
대 구	17	21	38
인 천	23	32	55
광 주	3	6	9
대 전	6	4	10
울 산	7	8	15
경 기	108	153	261
강 원	3	4	7
충 청	29	19	48
전 라	12	16	28
경 상	54	55	109
미응답	83	1	84
합 계	**521**	**502**	**1,023**

수출형태[1)]	지속	중단	소계
제품생산 후 직접수출	300	268	568
제품생산 후 간접수출	49	113	162
제품생산 없이 직접수출	184	101	285
제품생산 없이 간접수출	29	35	64
합 계	**562**	**517**	**1,079**

성장단계	지속	중단	소계
진 입 기	75	16	91
성 장 기	266	163	429
성 숙 기	164	244	408
쇠 퇴 기	16	79	95
합 계	**521**	**502**	**1,023**

주 : 수출형태 분류는 중복응답이 포함

(2) 지속·중단기업 설문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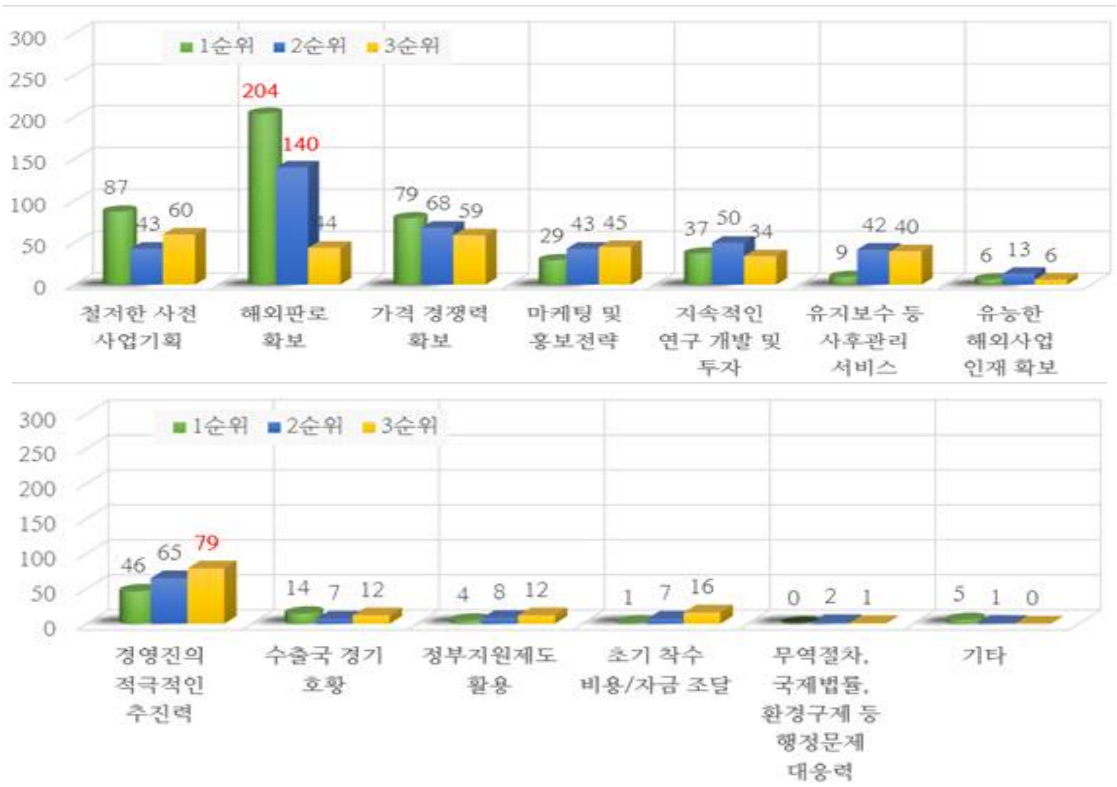
가. 지속기업

□ **수출 지속기업은 '해외판로 확보' '철저한 사전 준비', '가격 경쟁력 확보'를 주요 수출 지속요인으로 응답**

o (1순위 응답) 해외 판로(유통채널, 바이어) 확보' 39%, '철저한 사전 사업기획' 17%, '가격 경쟁력 확보' 15% 순으로 나타남

o (1, 2, 3순위 합산) '해외판로 확보', 가격경쟁력 확보, '철저한 사전 사업기획', '경영진의 적극적인 추진력' 순으로 나타남

〈 수출 지속기업의 수출 지속요인 응답 〉



o 수출 지속기업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격·기술, 해외마케팅, 우수인력 확보 순으로 노력을 경주

- 수출경쟁력 강화 노력정도 (5점척도) : '가격경쟁력 향상' 3.9점, '기술경쟁력 향상' 3.9점, '해외마케팅 전략' 3.6점, '인력 확보' 3.3점 순

□ 수출 지속기업의 주요 해외마케팅 수단은 ‘고객사 직접방문’, ‘전시회 참가’, 등으로 나타남

o (1순위 응답) ‘고객사 직접방문’ 39.6%, ‘전시회 참가’ 26.5%, ‘별다른 노력 없음’ 9.6% 등으로 나타남

o (1, 2순위 합산) ‘고객사 직접방문’, ‘전시회 참가’, ‘마케팅 Agent 활용’ 순

〈 수출 지속기업의 해외마케팅 수단 〉

□ FTA 활용 의지는 지속기업이 중단기업에 비해 높은 편

– FTA 활용의지(5점척도) : 지속기업 3.0, 중단기업 2.3 (전체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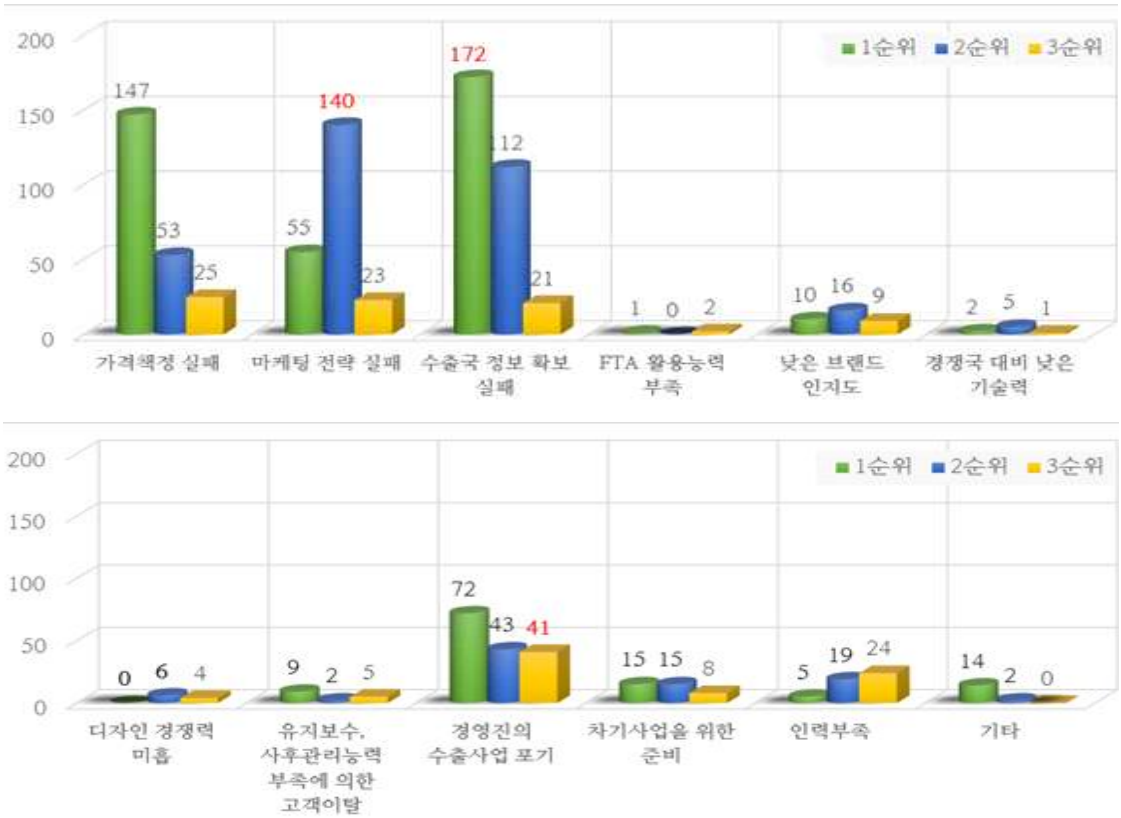
나. 중단기업

□ 수출 중단기업은 중단 내부요인으로 '수출국 정보확보 실패', '가격 책정 실패', '경영진의 수출포기'를 주 요인으로 응답

o (1순위 응답) '수출국 정보확보 실패' 34.3%, '가격책정 실패' 29.3%, '경영진의 수출사업 포기' 14.3% 등으로 나타남

o (1, 2, 3순위 합산) '수출국 정보확보 실패', '가격책정 실패', '마케팅 전략 실패' 의 순서로 나타남

〈 수출중단 내부요인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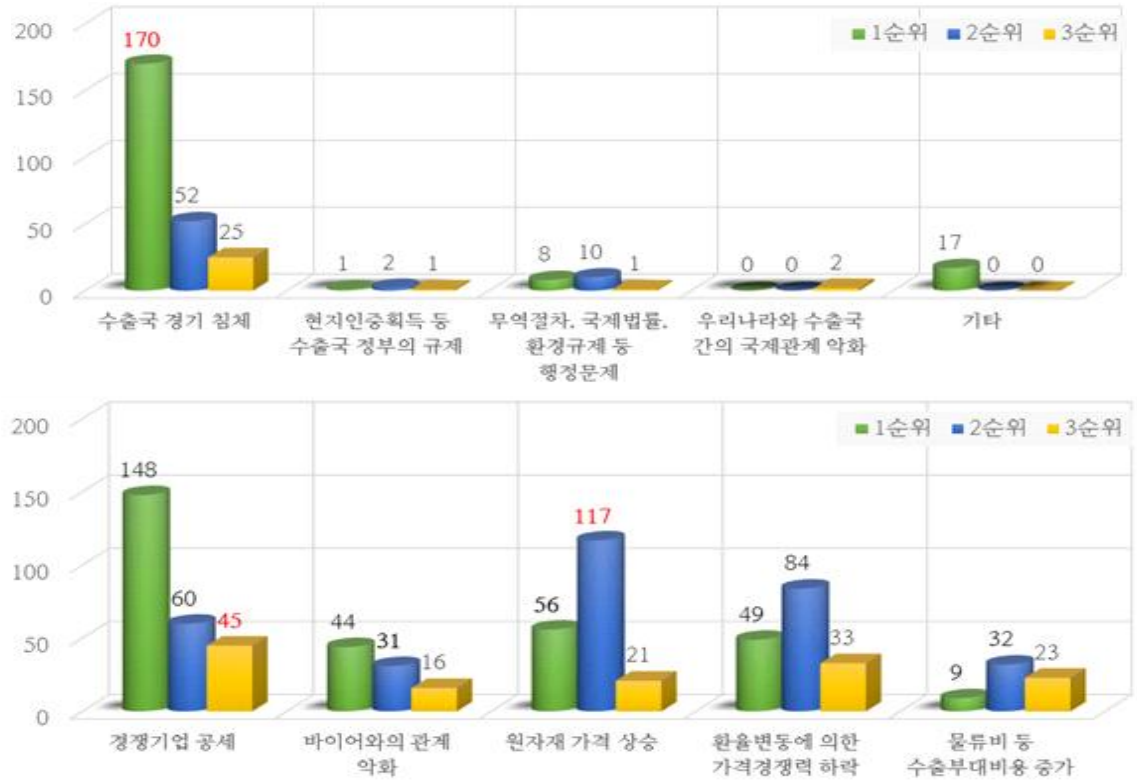


□ 수출중단 외부요인으로는 '수출국 경기침체', '경쟁기업 공세', '원자재 가격 상승'를 주 요인으로 응답

o (1순위 응답) '수출국 경기 침체' 33.9%, '경쟁기업 공세' 29.5%, '원자재 가격 상승' 11.2% 등으로 나타남

o (1, 2, 3순위 합산) '경쟁기업 공세', '수출국 경기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의 순서로 나타남

〈 수출중단 외부요인 응답 〉



□ **수출 중단기업은 지속기업에 비해 FTA 활용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o 중단기업 : FTA로 수출증가 응답 2.0%, FTA로 수출감소 응답 7.6%

o 지속기업 : FTA로 수출증가 응답 12.1%, FTA로 수출감소 응답 3.6%

〈 FTA에 따른 수출(매출) 증대효과〉

다. 수출 애로요인

□ **지속·중단기업 모두 가격경쟁력 > 해외마케팅 > 기술(품질)경쟁력 > 인력부족 의 순으로 수출애로가 크다고 응답**

o 지속·중단기업 모두 동일한 애로를 지적하고 있어 두 그룹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애로별 원인에 대한 응답은 다소 상이

- (가격경쟁력) 지속기업은 '환율변동'을, 중단기업은 '원자재(소재, 부품) 가격상승' 을 가격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지적

- (해외마케팅) 지속·중단 기업 모두 '유통망확보 어려움'을 지적

- (인력부족) 지속기업의 인력부족 응답이 소폭 높은 가운데 중단기업은 인력부족 원인으로 자사의 낮은 '회사인지도' 로 지적

o 지속·중단기업 모두 가격경쟁력 확보를 가장 큰 애로로 응답하고 있어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등의 업계 자체 노력과 함께 정부의 '환율안정', '물류체개 개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수출 애로요인 응답 〉

주 : 리커드 5점척도 응답 평균점

라. 정부 지원정책 활용

□ **지속기업이 중단기업에 비해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활용·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o 정부지원 4개 항목중 '자금·신용', '판로개척' 항목에서 지속·중단기업 간 인지·활용·성과 응답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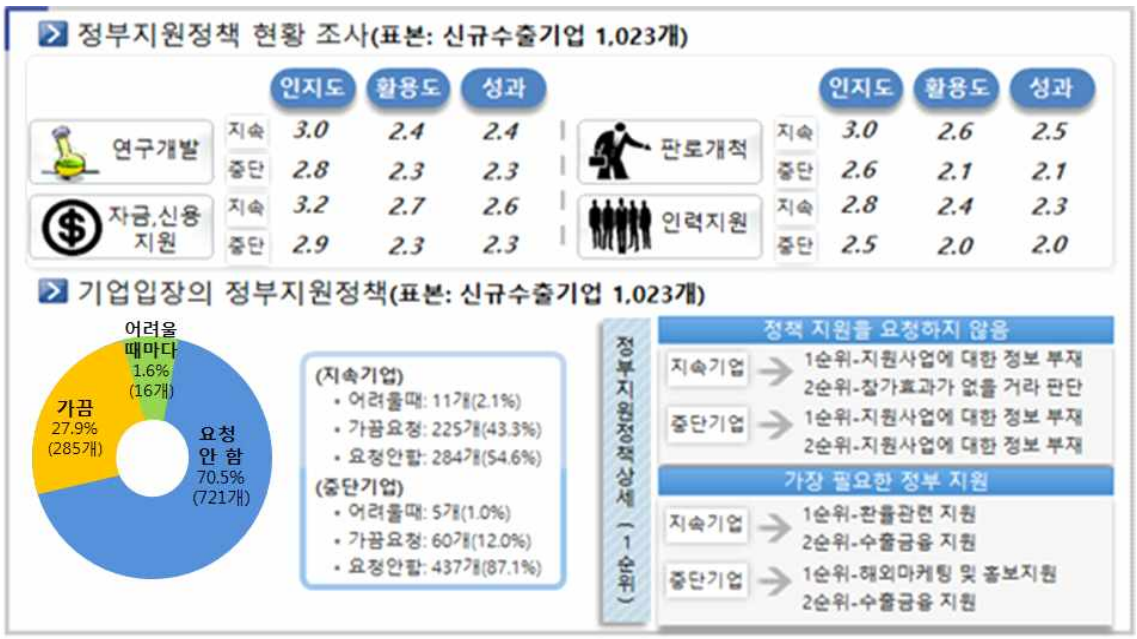
- (자금신용 지원) 지속기업 성과 2.6 > 중단기업 성과 2.3
- (판로개척 지원) 지속기업 성과 2.5 > 중단기업 성과 2.1
- (인력 지원) 지속기업 성과 2.3 > 중단기업 성과 2.0 (5점척도)

o 정부지원정책 미신청 사유에 대해 지속기업은 '지원정보 모름', '참가효과 미흡'을, 중단기업은 '지원정보 모름'을 응답

o 필요 정부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기업은 '환율관련 지원' 및 '수출금융'을, 중단기업은 '마케팅 홍보지원' 및 '수출금융지원'을 응답

o 정부정책 인지·활용이 높을수록 지속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와 성공사례 공유가 필요

〈 정부지원사업의 인지·활용·성과 여부 및 우선 정책순위〉



주 : 리커드 5점척도 응답 평균점

마. 수출역량

□ **지속·중단기업의 수출역량을 '글로벌리더쉽', '시장경쟁', '수출환경 적응', '기술혁신' 으로 분류한 결과 4개 항목 모두에서 지속, 중단 기업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4개 항목 모두 지속기업이 중단기업에 비해 유의[2]하게 높아 수출역량이 높은 기업이 수출지속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사업기회 창출노력」,「고객요구 대응」,「경쟁업체 대응」,「현지고객과의 협업」항목에서 지속·중단 기업간 역량 차이가 컸음

〈 지속·중단기업의 분야별 수출역량 비교 〉

주 : 리커드 5점척도 응답 평균점

2) 지속, 중단기업에 대한 t 검정으로 두 그룹 간 차이 여부를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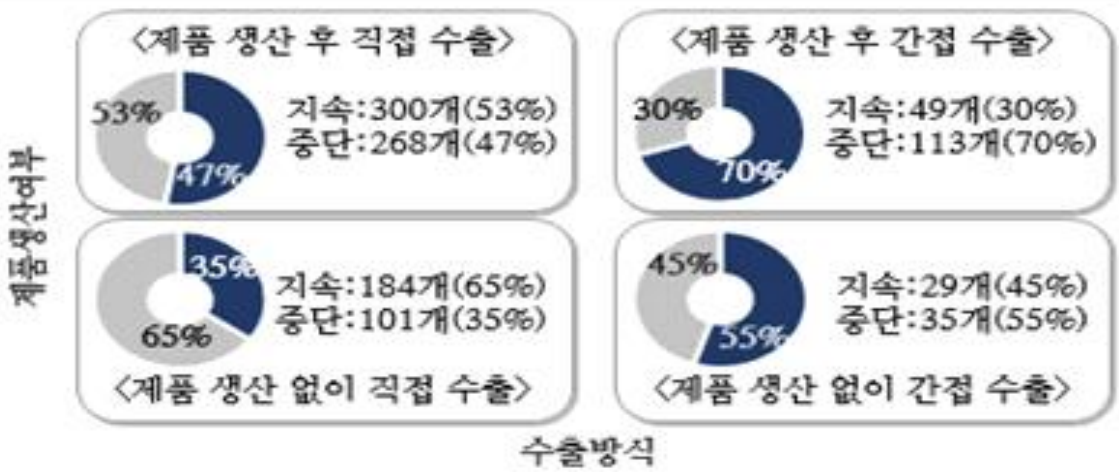
바. 수출유형별 차이

□ **간접수출보다는 직접수출 경험이 수출지속 기업으로의 성장에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o 직접생산·직접수출 기업중 지속기업이 53%로 중단기업 47%를 상회

o 간접생산·직접수출 기업중 지속기업이 65%로 중단기업 35%를 상회

〈 수출 유형별 지속 중단기업 현황 〉



주 : 설문대상 업체가 상기 4개 수출방식중 주력 수출방식을 선택토록 함

□ **또한 제조·非제조 기업에 대한 경로분석[3] 결과 제조여부에 따라 정부지원 성과가 상이하여 정부지원의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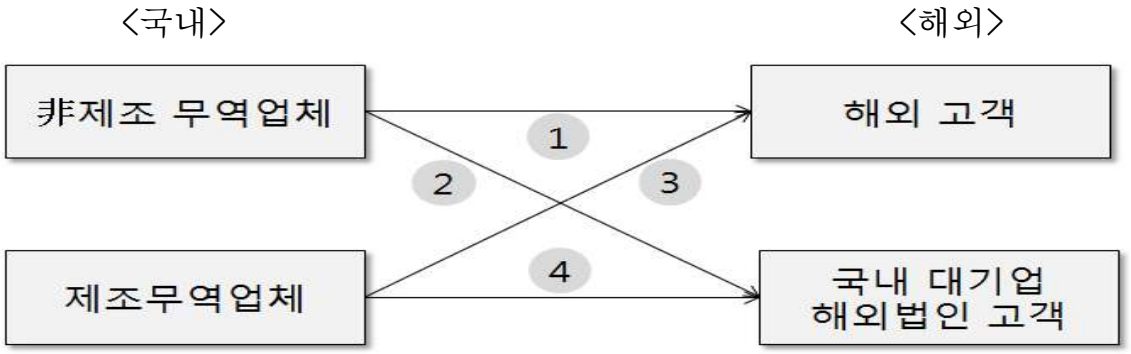
o (제조기업) '연구개발(R&D)' 및 '자금·신용 지원'은 수출성과에 유의하였으나 '수출판로 개척', '인력지원'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o (非제조기업) '글로벌 리더쉽', '시장경쟁' 수출역량이 수출성과에 긍정적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해당 역량강화 지원이 더 효과적

3) 4개 수출역량을 독립변수, 수출성과를 종속변수, 정부지원정책 성과를 매개변수로 하여 모형 구성

(3) 지속·중단기업 심층 인터뷰 결과

가. 지속·중단기업 유형 및 특징



〈 심층 인터뷰기업의 유형별 특징 〉

유 형			주 요 특 징
독립형 직접수출	①	전문 수출 기업	• **제조기반 없이 국내외 소싱을 통해 해외고객대상 직접수출** • 시장수요에 맞는 제품을 국내 제조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 • **제조기반이 없어 정부 R&D 지원사업에 참여 제약** •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매우 높은 편 (80~100%)
	③	제조 기반 수출 기업	• **제조를 기반으로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수출** • 공장 가동을 위해 적정 수준의 물량이 필요(규모의 경제) • 정부의 R&D 지원사업을 통해 제품 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R&D사업의 **수출화 비중은 약 20%로 저조** • 리더십에 따라 수출 또는 내수 집중의 변동성을 보임
종속형 직접수출	②	전문 수출 기업	• **국내 대기업의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직접 수출하는 형태 • 전체 수출비중 중 대기업 해외법인 수출비중이 높은 편
	④	제조 기반 수출 기업	• **제조기반의 대기업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직접 수출** • 물류, 원가 문제로 해당지역 **생산법인 설립으로 전환 추세** • 생산법인 설립을 위한 **지원제도 부족 및 활용도가 낮음** • 생산법인 설립 후 현지정보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현지 고객 발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현지화 형태로 발전**

나. 기업 유형별 수출 애로요인

유형			수출 애로요인
독립형 직접 수출형	①	전문 수출 기업	• **환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 • 제조기반이 없어 **고객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능력이 미흡**하여 시장경쟁력 약화 위험 • **수출상품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 해외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 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수출국가에서의 치열한 가격경쟁 • 제조기반 부재로 R&D 지원 정책 활용 어려움 •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시장 수요 감소나 고객관계 단절 시 수출중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큼
	③	제조 기반 수출 기업	• **신뢰성 있는 고객 확보 및 발굴 애로** • 시장이 다품종 소량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장 운영에 필요한 물량 확보의 어려움 • **물량부족 → 가동률 저하 → 생산성 문제 → 운전자금 필요 → 수출 포기 → 안정적 고객 확보를 위해 내수 전환** • 해외 시장 개척과 마케팅을 위한 전문 인력 부족
종속형 직접 수출형	②	전문 수출 기업	• 해당 유형 없음
	④	제조 기반 수출 기업	• 대기업 고객의 납품 단가 인하 압력으로 **현지 생산법인 설립 고려 증대** • 수출과는 별도의 **현지 생산법인 설립을 위한 역량 미흡**(현지 시장 정보, 인허가, 노무 등)으로 직접 수출 •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지원제도가 부족하고 이의 활용도도 낮은 편** • 생산법인 설립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많은 시행착오 발생 • 생산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 부족

다. 기업 유형별 수출 지속·중단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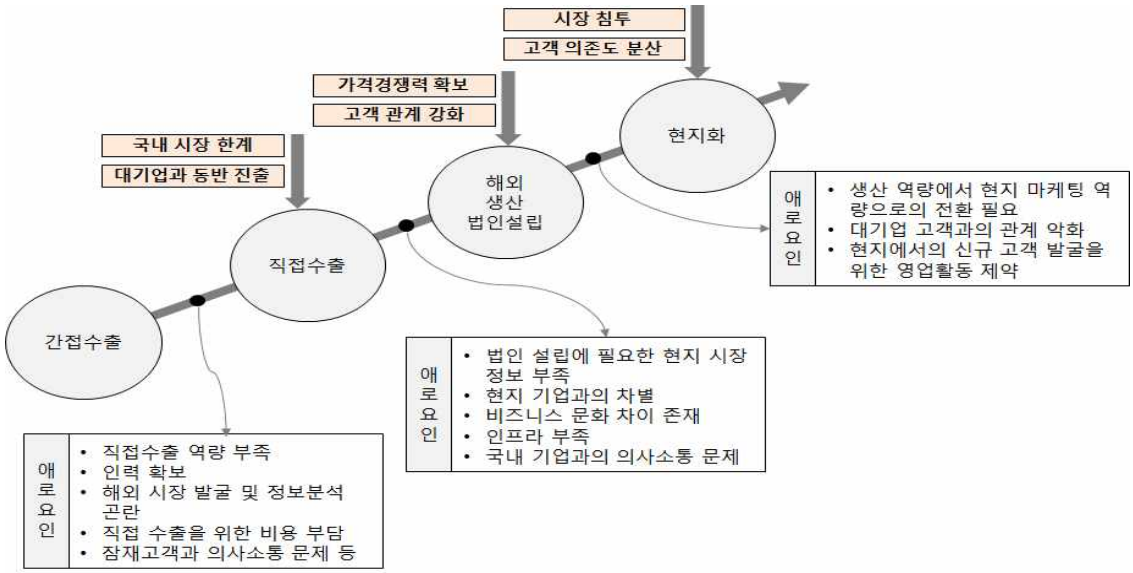
유 형			수출 지속 요인
독립형 직접 수출형	①	전문 수출 기업	• **해외 고객과의 신뢰 형성**을 위한 노력 (납기 준수, 사후 서비스 제공 등) • 경영자의 **높은 글로벌 지향성** • 시장 및 고객 수요에 대한 민첩한 대응 • 지속적인 시장 정보 확인 및 변화 모니터링 역량 확보
	③	제조 기반 수출 기업	• 품질 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 연구 개발** • 고객 요청에 따른 신속한 제품 및 샘플 개발 • 품질 경쟁력 기반의 디자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 원가절감, 시장 확대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노력
종속형 직접 수출형	④	제조 기반 수출 기업	• 대기업 고객의 해외 진출에 따른 수출 유형변화 필요성 인식 • **직접 수출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 (물류비 절감, 수출 전문인력 확보) • 경영자의 글로벌 지향성 • 대기업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품질 및 가격경쟁력 확보 노력

유 형			수출 중단 요인
독립형 직접 수출형	①	전문 수출 기업	• 기존 해외 **고객과의 관계단절** • 핵심 수출 국가의 수요 감소 • 잠재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비용 부담 • 제조기반이 없어 고객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불가 • **수출 물품 소싱의 한계 및 국내 기업간 경쟁 심화**
	③	제조 기반 수출 기업	• 기존 해외 **고객과의 관계 단절** • 제품생산 치중 시 수출역량 악화로 수출 중단 • 수출역량 강화 치중 시 제품개발 역량 악화로 품질 경쟁력 악화 •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역량 부족** • 핵심 수출 국가의 수요 감소
종속형 직접 수출형	④	제조 기반 수출 기업	• 대기업 고객의 해외 진출에 따른 직접수출로의 전환 시점에서의 **직접 수출 역량 확보 실패** • 수출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수출 부대비용 부담으로 직접 수출로 전환하지 않고 내수 거래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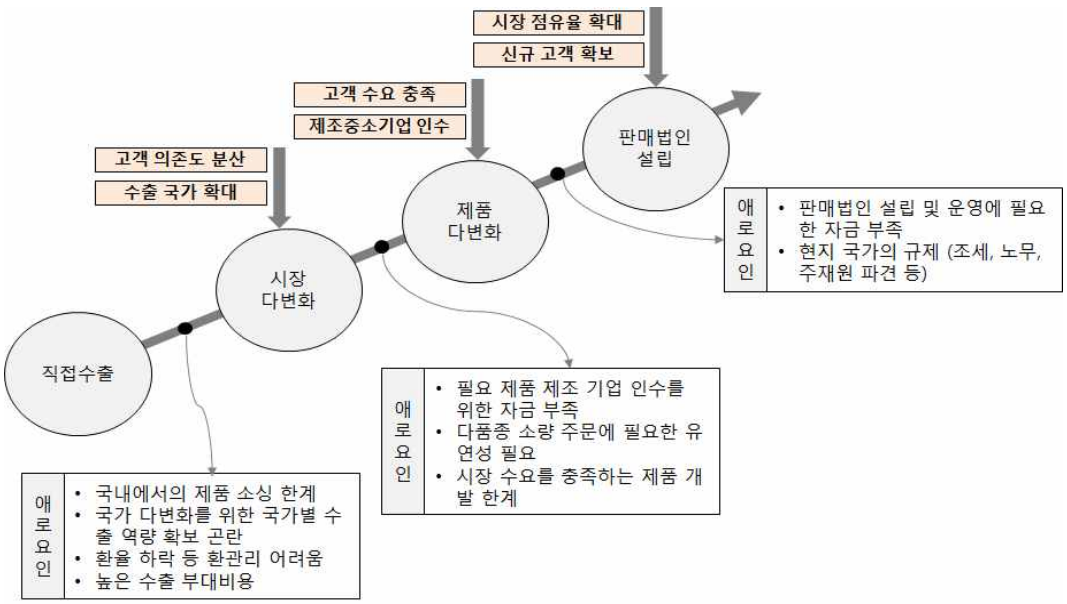
라. 지속·중단 기업의 성장경로

□ 지속·중단 기업중 제조기반 수출기업은 간접수출 → 직접수출 → 해외 생산법인 설립 → 현지화의 성장경로를 보이고 있으며 성장단계별로 상이한 애로를 겪고 있음

○ 특히 해외 생산법인 설립시 시장조사, 인허가, 의사소통 등의 애로가 큼



□ 전문수출기업은 직접수출 후 시장·제품 다변화, 해외 판매법인 설립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시장수요에 맞는 제품소싱 및 제조업체 발굴, 국내 기업간 경쟁확대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남



Ⅴ. 결론 및 시사점

□ 신규 수출기업의 수출 지속률이 2년차에 절반, 4년차에는 1/3 수준에 불과하여 수출기업의 지속률 제고가 필요

o 2009~2014년 신규 수출업체 86,659개사의 수출지속률은 1년후 54.6%로 절반에 불과했으며, 3년후에는 34.7%로 1/3 수준에 불과

o 수출지속률은 과거 2003~2008년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함께 신규 수출기업의 수출지속률 제고가 중요

o 2003~2013년 신규 수출업체중 2014년 수출중단 업체는 1.7만개사로 이들 기업의 수출 중단금액은 20억 달러에 달함

- 과거 10년간 신규 수출업체중 2014년 수출 중단기업을 10% 감소시키면 수출이 2.0억달러 증가

< 수출 중단업체수 감소시 수출증가 효과 시산>

(만달러, 백만달러)

	2014년 수출중단 업체			중단업체 10% 감소시		5천개사 감소시	
	업체수 (a)	평균 수출액(b)	중단금액 (a×b)	업체수 (c)	수출증가액 (c×b)	업체수 (d)	수출증가 (d×b)
12년차 중단	437	19.2	84	44	8	200	38
11년차 중단	454	23.8	108	45	11	220	52
10년차 중단	493	15.9	78	49	8	240	38
9년차 중단	583	25.9	151	58	15	280	72
8년차 중단	647	15.3	99	65	10	310	47
7년차 중단	801	12.8	102	80	10	400	51
6년차 중단	1,041	16.5	172	104	17	500	83
5년차 중단	1,211	15.3	185	121	19	550	84
4년차 중단	1,469	13.7	202	147	20	600	82
3년차 중단	2,775	14.0	389	278	39	700	98
2년차 중단	6,745	6.5	436	675	44	1,000	65
합 계	16,656	12.0	2,005	1,666	201	5,000	711

주 : 1) 2003~2013년 신규 수출업체 160,272개사중 2014년중 수출중단 16,656개사 분석
2) 평균수출액 단위는 1만달러, 중단금액 및 수출증가액 단위는 백만달러

□ **중고차, 플라스틱, 의류 등은 신규 진입 및 중단 업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형화·전문화를 통한 전문 수출기업 육성 필요**

- 상기업종은 非제조 무역업체의 일회성 수출이 많아 대형화를 통한 전문 수출기업으로의 육성이 바람직

□ **중국시장은 진입·중단 수출업체수가 가장 많으나 신규 진입업체 비중은 하락, 중단업체 비중은 점차 상승하고 있어 정부의 對중국 중소기업 진출지원 강화가 시급**

o 과거에는 對中수출기업의 수출지속률이 미국을 상회하였으나 '09~'14년 신규 업체의 경우에는 미국은 물론 일본, EU, ASEAN에 비해서도 낮음

o 지속·중단 요인 실증분석에서도 對中 수출기업의 수출지속 가능성이 일본, 미국은 물론 EU, ASEAN에 비해서도 낮아 對中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o 이는 중국시장에서 경쟁국은 물론 현지 로컬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데 따른 것으로 향후 일회성 지원이 아닌 현지 밀착형 지원으로 對중국 정책지원을 개편할 필요

- 전시회, 현지 바이어(중개상) 연계와 같은 매칭형 지원보다는 거점별 현지유통망 직접 연계, 국내외 기업과의 중국 유통망 공동구축 등 중국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세밀한 정책지원 필요

□ **실증분석 결과 수출 국가수 확대가 품목수 확대보다 수출지속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o 최근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초보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 및 수출지원기관의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속·중단기업에 대한 설문결과 수출지속 핵심요인으로 '판로확대'를 꼽고 있고 중단요인도 '해외바이어 단절'을 많이 지적하고 있어 해외판로 정책지원을 크게 강화할 필요**

o 지속·중단 요인중 해외판로 개척 응답이 가장 높고, 지속·중단 기업 모두 가격경쟁력 다음으로 '해외판로'를 가장 큰 애로로 지적

- 선진국의 경우 전략적 목표시장을 선정하고, 목표시장에 특화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전시사업과 시장타당성조사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수출유형, 제조여부, 고객유형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수출역량이 상이하여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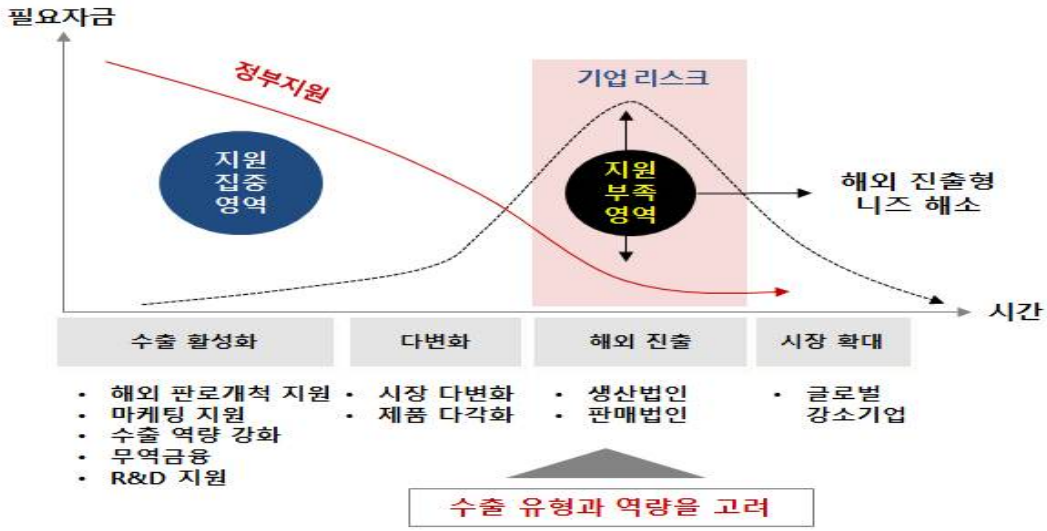
o 전문수출기업은 '고객 네트워크', '시장수요 파악' 역량이 높은 반면 제조기업은 '제품개발·생산' 역량이 높아 제조기업의 수출기업화와 함께 제조기업·전문기업 간 정보교류 및 협업시스템 구축 필요

o 또한 전문수출기업은 시장수요에 맞는 제품개발 니즈 파악이 용이하나 정부의 R&D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어 수출상품 R&D 지원시 전문수출기업을 함께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 **성장단계에 맞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지원 사각분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o 제조기업의 경우 간접수출 → 직접수출 → 해외 생산법인 설립 → 현지화 단계로 성장하나 해외 생산법인 설립 단계이후 지원정책이 미흡

o 전문 수출기업은 직접수출 → 시장다변화 → 제품다변화 → 판매법인 설립 단계로 성장하나 제품다변화·판매법인 설립시 지원정책이 부족

o 중소기업 해외진출이 수출중심에서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 설립으로 다양화되면서 기업의 리스크는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지원은 축소되고 있어 해외진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지원정책 확대 필요

〈 해외 진출 유형에 따른 지원부족 영역 〉